

최근 터키의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과 영향

I. 정치·사회적 리스크: 난민 유입 및 쿠르드족과의 갈등	1
II. 경제적 리스크: 높은 대외의존도, 러시아의 對 터키 제재	4
III. 향후 경제 전망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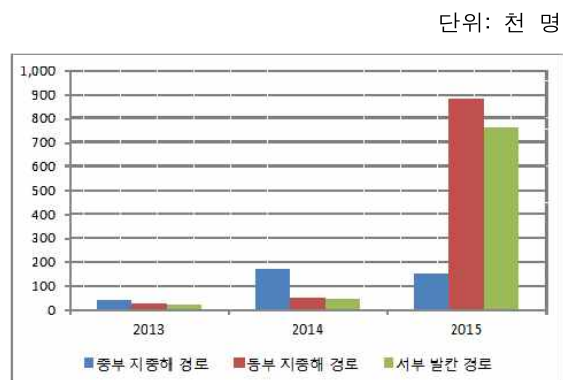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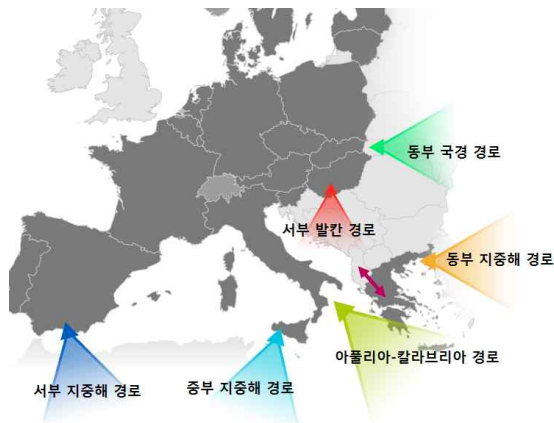
확인 :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작성 : 조 사 역 조희연 (6255-5708)
chy@koreaexim.go.kr

I. 정치·사회적 리스크: 난민 유입 및 쿠르드족과의 갈등

□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 유입 급증

- 시리아 내전이 심화된 이후 터키로의 난민 유입이 급증하여, 터키는 2015년 말 기준 1.7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 이는 시리아 인접 5개국(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중 가장 많은 수준임.
- 시리아 인접국 중 터키로의 난민 유입이 많은 이유는 터키가 EU 국가로 입국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 시리아에서 EU 국가로 입국하는 주된 경로는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동부 지중해 경로, 이탈리아로 향하는 중부 지중해 경로 및 발칸반도에서 헝가리로 향하는 서부 발칸 경로임. 이 중 동부 지중해 경로를 통해 EU로 입국한 난민 수는 2015년 88.5만 명에 달함.



출처:유럽연합 국경관리청(Frontex)

- 터키로 유입된 난민들이 그리스로 이동하면서 난민 문제가 유럽 전역의 문제로 확대되어 EU와 터키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
 -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동한 난민들은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에 의해 유럽 내 대부분의 국가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여, 시리아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북유럽 국가까지 난민 유입이 가능해짐.

- EU-터키 간 지속된 협의 끝에 터키로의 대규모 난민 송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터키 내 난민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3월 7일 EU-터키 간 정상회의에서 터키로의 불법 이주민 송환에 양측이 합의함. 이에 따라 EU는 난민 수용을 위한 60억 유로 지원, 터키인의 EU 국가 입국시 비자 면제 검토를 약속했으며, 터키의 EU 가입 협상이 재개됨.
 - 3월 18일 최종 합의에서 그리스로 유입된 불법 이주민 중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터키로 송환하기로 함. 그러나 합의 사항에 대해 UN 및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력 부족 및 정확한 방침 부재로 난민송환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난민정착 지원 및 사회적 통합 등에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EU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EU 가입 협상 재개 등은 터키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쿠르드노동자당(PKK)과의 갈등, IS 테러 등으로 사회불안 심화

- 터키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주로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운동이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중심으로 일어나 정부군과의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음.
- 2013년 3월 터키 정부와 PKK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15년 7월 발생한 IS의 자살폭탄 테러를 계기로 휴전이 중단되어, PKK의 터키 내 테러 및 정부군과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7월 터키 남동부 지역 수르츠(Suruc)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쿠르드계 사회주의청년연합(FSYA) 회원 다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PKK는 IS의 쿠르드족 대상 테러를 정부가 방조한다고 비난하며 터키 군경에 대한 공격 및 반정부시위를 일으킴.
 - 이 사건을 계기로 터키는 2년 4개월 만에 PKK와의 휴전을 중단하고 PKK 기지를 공습하는 등 보복 조치를 시행함.

- 또한 터키 내 쿠르드족을 겨냥한 IS의 보복성 테러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시리아 내 IS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쿠르드 계열의 인민수비대(YPG)를 지원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인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1월 이스탄불 술탄아흐메트 광장에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함. IS의 테러는 이전부터 발생해 왔으나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일어난 테러는 이번이 처음임.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IS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쿠르드족 주요 정파>

정 파	활동국가	군사조직	특징
쿠르드노동자당(PKK)	터키, 이라크	강경 무장세력	反터키, 테러단체로 지정 (터키·미국·EU)
인민민주당(HDP)	터키	온건 정파	2015년 터키 총선에서 제3야당으로 도약
민주연맹당(PYD)	시리아	인민수비대(YPG)	反터키·IS

<'15년 1월 이후 주요 테러 현황>

날짜	예상배후세력	내 용	사망자 수
'15년 1월	IS	이스탄불 술탄아흐메트 지구 경찰서	1
'15년 6월	IS	디아르바크르(쿠르드족 중심 도시)	4
'15년 7월	IS	남부 수루츠 자살폭탄 테러	33
'15년 8월	PKK	이스탄불 술탄베일리구 경찰서	-
'15년 10월	IS	앙카라 쿠르드족 평화시위대 대상	140
'15년 12월	TAK*	이스탄불 사비하귀첸 공항 활주로 폭발	1
'16년 1월	IS	이스탄불 술탄아흐메트 광장 폭탄 테러	10
'16년 1월	PKK	남동부 디아르바키르주 경찰서 차량폭탄 테러	5
'16년 2월	PKK, YPG	앙카라 공군사령부 인근 차량폭탄 테러	28
'16년 3월	PKK	앙카라 도심 차량폭탄 테러	37
'16년 3월	TAK*	이스탄불 이스티크랄 거리 자살폭탄 테러	5

*TAK(Teyrêbazên Azadiya Kurdistan)는 PKK의 분파인 것으로 알려짐.

- 터키 내 지속된 테러 발생으로 관광업이 위축되었으며,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도 우려되는 상황임.

- 2015년 터키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3,624만 명, 관광수입은 315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6%, 8.3% 감소하였음. 특히 2016년 1월 최대 관광지인 술탄아흐메트 지구에서 민간인을 겨냥하여 발생한 테러의 영향으로 2016년 1월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II. 경제적 리스크: 높은 대외의존도, 러시아의 對 터키 제재

□ 해외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외부환경의 변동에 취약

- 터키는 석유, 가스, 철강 등 원자재·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국내 저축률이 낮아(15년 기준 16%) 해외자본 유입으로 이를 보전하고 있어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대외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함.
- 2015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및 정정불안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증대됨.
- 2015년 말 기준 미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2.9리라로 전년 말 대비(2.3리라) 대비 26% 상승하였으며, 주가지수는 전년 말 대비 16.1% 하락함.

환율 변동

단위: 리라/미달러



주가지수 변동

단위: pts



출처: Bloomberg

- 2016년에도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해외자본의 이탈,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터키의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Morgan Stanley는 터키를 미국 통화 정책 변동에 노출이 심한 '5대 취약국(fragile 5)'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 6월 Moody's도 터키를 미국의 금리인상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신흥국으로 분류함.

□ 러시아의 대 터키 제재에 따른 경제적 타격

- 2015년 11월 24일 터키군 전투기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군 전투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러시아는 대 터키 제재 관련 대통령령 및 시행령을 발표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음.
- 터키는 러시아군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에 대해 수 차례 경고 후 공격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시리아 영공에서 공격을 받아 격추된 것이라며 터키의 주장을 반박함.

<러시아의 터키 제재>

제재분야	내 용
비자	-러시아-터키 간 체결한 비자 면제협정 (2개월 이하 체류시 비자 면제)의 무기한 중단
노동계약	-러시아 내 터키인 노동자의 신규고용 및 계약연장 금지
관광 및 운송	-러시아 여행사들에 대해 터키 관광상품 판매 자제 권고 -러시아발 터키행 전세기 운항 금지 -터키 운송회사 및 터키 선박에 대한 통제 강화

출처: Kotra 재인용, 러시아 대통령실

- 러시아의 대 터키 제재는 일부 터키산 채소 및 과일 수입 금지, 러시아-터키 간 무역경제 협력위원회 활동 중단, 양국 상호 여행에 관한 정부 간 협약 중지, 러시아와 터키 간 전세기 운항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 터키 제재조치는 터키 경제에 가시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 **(교역 규모 감소)** 러시아 수출은 러시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이미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2015년에는 러시아의 터키산 과일 및 채소 수입 중단 조치로 전년 대비 39.5% 감소함.

* 러시아는 2015년 말 기준 터키의 11번째 수출 대상국, 3번째 수입 대상국으로 교역규모가 큰 편임.

<터키의 대 러시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2	2013	2014	2015
수출	금액	6,681	6,964	5,943	3,594
	증감률	11.5	4.2	-14.7	-39.5
수입	금액	26,625	25,064	25,288	20,400
	증감률	11.2	-5.9	0.9	-19.3

출처: 무역협회

- **(관광수입 감소)** 러시아 경기침체 및 러시아의 대 터키 제재조치로 터키를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 수는 2015년 전년 대비 21.9% 감소함. 특히 러시아 관광객이 주로 찾는 안탈리아(Antalya) 지방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2016년 1월 전년동기 대비 81.1% 감소하여, 올해에도 관광객 및 관광수입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프로젝트 중단)** 러시아 천연가스 국영회사 Gazprom의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인 Turkey Stream에 터키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 Turkey Stream은 러시아 남부에서 흑해 해저를 통해 터키 서부 및 남유럽 국가에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EU의 대러 제재 이후 폐기된 South Stream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됨.

Ⅲ. 향후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러시아의 제재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2010~14년 평균치보다 낮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 유입 및 테러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며,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과 결합되어 저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불균형 지속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물가 하락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된 4.5%를 기록함. 그러나 2016년에는 4.7%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리라화 약세가 저유가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상쇄하는 데 기인함.
- 2015년 11월 정부가 구조개혁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세계경제 불확실성, 터키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으로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시행이 필요한 상황임.

□ 단기외채 비중이 높아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우려

-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은 2009년 이후 30%대로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특히, 2016년 정부채무의 평균 만기가 6.4년으로 길고 외화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긍정적인 점.
- 외환보유액은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매각 등으로 2014년 말 1,053억 달러에서 2015년 말 944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말 기준 월평균 수입 대비 4.7개월분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그러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상존함.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f
GDP(억 달러)	7,886	8,230	7,983	7,222	7,212
경제성장률	2.1	4.2	2.9	3.0	2.9
소비자물가상승률	8.9	7.5	8.9	7.4	7.0
재정수지/GDP	-1.7	-1.3	-1.0	-0.8	-0.8
실업률	8.4	9.0	9.9	10.8	11.2
경상수지/GDP	-6.2	-7.9	-5.8	-4.5	-4.7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94,280	109,249	105,343	94,408	-
정부채무/GDP	36.2	36.2	33.7	32.4	31.4
총외채잔액/GDP	48.3	51.5	53.4	52.9	54.1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00.3	117.6	124.3	128.9	-

출처: IMF, EIU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조사역 조희연 (02-6255-5708)
 chy@koreaexim.go.kr